

논문 30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 아 미*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일찍 자신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에 관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Herr & Cramer, 1996). 진로에 있어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진로는 주요 관심사이면서 동시에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선택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다(김봉환, 2000). 이것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1993; 이대 학생생활지도연구소, 1994).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그 원인은 학업문제와 더불어 진로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청소년들이 우울증, 좌절, 불안, 무기력감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직업선택이 생의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성의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보다는 발달론적 입장에서 진로발달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진로결정이다. 한편, 직업결정은 진로결정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직업결정은 그 후에 하게 될 일련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직업결정이 성인기의 직업결정으로 연결될 것인지, 그 결정이 변하지 않고 평생 지속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에 미래 직업결정을 했다는 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이 결정한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청소년을 이끌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제까지는 진로결정보다는 진로미결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왜 진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로를 결정하지 못하는가? 에 대한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진로결정과 관련해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김관환, 1996; Peng & Herr, 1999),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 등의 개인변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권신영, 2001; 윤선미, 2001),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체계 유형 등 환경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김지혜, 1998; 이현숙, 2002) 등에 대해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진로 혹은 직업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보다 실질적이고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탐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많아졌다.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재량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진로상담 및 진로관련 검사의 기회나 진로관련 강연을 들을 기회도 많아졌다. 이러한 일련의 진로지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활동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진로지도가 청소년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나 활동이 청소년의 직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경험과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 및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면, 그 결과는 앞으로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결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결정과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통하여 연구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결정과 관련된 실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직업결정 예측요인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진로결정유형은 다양한 진로결정유형에 따라 그에 적절한 진로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진로미결정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 어떤 지도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진로결정을 한 청소년에게도 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을 한 청소년의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로는 결정했으나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정보가 필요한 청소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1) 청소년의 직업결정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2) 직업결정 준거에 따라 직업결정 유형을 분석하고, (3)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청소년의 직업결정관련 실태는 성별과 학교급별로 직업결정 비율을 조사하고,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의 희망직업 유형에 대해서 알아본다. 직업결정 준거에 따라 직업결정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적성을 인지하는지의 여부, 결정한 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을 아는지, 결정한 직업의 전망과 보수를 아는지에 따라 8

개의 직업결정 유형을 제시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 경험,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 및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유형

최근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를 결정했느냐의 여부와 더불어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것은 진로지도가 진로결정유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직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과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개인에 대한 진로지도의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Harren(1976)과 Gati 등(1996)의 진로결정 유형이 있다. Harren(1976)은 진로결정유형을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의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Harren의 분류에 근거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이현주, 1998; 이소연, 2003). Gati 등(1996)은 진로의사결정의 장애에 대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는 준비성 부족, 정보부족, 모순된 정보가 포함된다. 진로의사결정 과정 이전에는 준비성 부족, 그리고 과정 중에는 정보부족과 모순된 정보로 인하여 개인이 진로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준거로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했는데, A집단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고, B집단은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은 집단이고, C집단은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높은 집단이며, D집단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이다. 허자영(1996)은 진로결정유형을 ‘진로결정-확신있는’, ‘진로결정-확신없는’, ‘진로결정-정보필요’, ‘진로미결정-정보필요’, ‘진로미결정-진로무관심’, ‘진로미결정-불안정성’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박미진 등(2001)도 ‘진로결정-확신’, ‘진로결정-불확신’, ‘진로결정-불안정’, ‘진로미결정-불안정’, ‘진로미결정-미불안’, ‘진로결정-혼란’, ‘진로미결정-역기능적 사고집단’의 7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제까지의 진로결정유형 연구를 종합해 보면, 진로미결정의 경우는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진로결정의 경우는 확신정도와 편안함을 준거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진로미결정 집단의 경우, 진로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 진로지도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진로결정 집단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과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진로결정 집단에 대한 진로지도는 거의 고려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진로결정 집단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김봉환(1997) 연구에 나타난 B집단의 경우, 진로결정 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으므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허자영(1996)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정보필요’ 집단의 경우 진로를 결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개인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노만진(2003)의 연구에서는 ‘정보없는 결정형’이 3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진로미결정 집단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집단의 경우에도 진로미결정 집단과 마찬가지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결정의 경우에도 그 결정이 진로관련 정보에 근거한 결정이냐의 여부에 따라 진로지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Gati와 Saka(2001)가 정보부족 때문에 진로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진로의사결정을 해도 정보부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유형을 범주화하였다. 유형화는 자신의 적성인지 여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전망 및 보수의 3개 기준에 의해서 8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진로결정관련 변인

청소년의 진로결정 관련 변인으로 지금까지 주로 연구되어온 것은 성취동기(이재창·유계식, 1996), 자아존중감(송소원, 2001), 성격유형(손충기·이영희, 2001; 이현주, 1998) 등의 개인내적 요인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김지혜, 1998) 등의 환경요인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진로관련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김현수 등, 2004; 김판환, 1996). 다양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만진(2003)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자기 탐색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했다. 홍치완(2000)은 기술교육에 대한 진로와 직업정보가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고 했다. 이 연구들은 직업교육 체험이나 진로 및 직업정보가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기 탐색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을만하다. 한편, 강옥희(2003)는 집단 상담이 합리적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전종남(2002)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결정을 더 많이 했다고 한다.

가정내에서 자녀와 진로관련 대화나 활동을 하는 것이 자녀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가족체계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김민경(2002). 가족체계유형 중 혼돈과 융통이 진로결정수준 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유형이 혼돈인 경우 진로결정수준의 확실성은 낮고

유통의 경우 확실성이 높다고 했다. 이은아(2003)는 역기능적 가족구조(부모불화, 과잉개입, 역할전도, 분리불안)가 자녀의 준비성 부족, 정보부족, 모순된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의 일경험이 그들의 진로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내보다는 주로 국외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는 공부를 해야하는 시기이지 일을 경험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최근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정책 중 일부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대두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Peng과 Herr(1999)는 타이완의 경영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강의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한 결과, 진로교육 강의가 진로확실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Luzzo(1995)는 일경험, 특히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진로분야에서의 일경험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재학중 다양한 진로선택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학습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연구대상은 2004 한국 교육 고용 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1차년도 조사대상이다. 총 6,000명으로 중학생 2,000명과 인문계 고등학생 2,000명, 실업계 고등학생 2,000명이다. KEEP에서는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하고(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함), 2단계에서는 지역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했다(keep.nhrd.net/jsp/html/research/survey_con.html). 중학교 2,249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1,296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631개교가 표집대상이었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로는 2004 한국 교육 고용 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1차년도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사용했다.

1) 청소년의 진로결정 관련 실태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는지의 여부(36)
정한 직업(36-1)

2) 직업결정 유형

정한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36-2):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전망 및 보수
자신의 적성(43)

3) 청소년의 직업결정 예측요인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7)
진로지도 경험(44)
가정내 진로 관련 대화와 활동(45)
아르바이트 경험(48)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자승 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미래 직업결정 실태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결정 정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미래 직업을 결정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결정이 1,252명(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 중학생은 58.5%가 미래 직업을 결정했고, 여자 중학생은 66.6%가 결정이었다. 이것은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미래 직업을 더 많이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미래 직업결정이 1,443명(72.2%)이었다.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학생의 69.7%와 여학생의 75.2%가 미래 직업결정이었다.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등학생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미래 직업결정 비율이 높았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미래 직업결정이 1,211명(6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56.4%와 여학생의 65.7%가 미래 직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미래 직업결정 비율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 직업결정 비율이 높는데, 그 중에서도 인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표 1> 학교급,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미래직업 결정 비율

학급별	미래 직업 결정여부	성별		χ^2	p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결정	583 (58.5%)	669 (66.6%)	14.01	.000
	미결정	413 (41.5%)	335 (33.4%)		
인문고	결정	779 (69.7%)	664 (75.2%)	7.31	.008
	미결정	338 (30.3%)	219 (24.8%)		
실업고	결정	623 (56.4%)	588 (65.7%)	17.98	.000
	미결정	482 (43.6%)	307 (34.3%)		

2) 청소년의 희망직업 유형

(1) 중학생의 희망직업 유형

중학생의 희망직업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 직업결정을 한 중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중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유형은 학교교사로 312명(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학생의 1/4 정도가 학교교사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의사 8.9%, 창작 및 공연 관련직 6.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위인 학교교사를 원하는 중학생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1%미만의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유형은 전체의 15.1%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직, 판매원, 운송차량 및 기계관련 조립원 등 34개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중학생의 희망직업 유형

희망직업	빈도(명)	비율(%)
학교교사	312	24.9
의사	112	8.9
창작 및 공연 관련직	79	6.3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직	61	4.9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54	4.3
디자인 관련직	54	4.3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45	3.6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44	3.5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련직	41	3.3
주방장 및 조리사	38	3.0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관련 기술자(엔지니어)	34	2.7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32	2.6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32	2.6
법률 전문직	30	2.4
작가 및 출판 관련직	29	2.3
경영 관련 사무직	27	2.2
여행,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20	1.6
군인	19	1.5
기타	189	15.1

주. 중앙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한국고용직업준류(KECO)에 따라 분류한 것임.

(2) 인문계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유형

인문계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사가 351명(24.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디자인 관련직 5.1%, 창작 및 공연 관련직 4.7%, 경영관련 사무직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 미만인 희망직업 유형은 전체의 18.5%인데, 여기에는 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부동산 중개인, 식당 서비스 관련직 등 45개 직업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인문고생의 희망직업 유형

희망직업	빈도(명)	비율(%)
학교교사	351	24.3
디자인 관련직	73	5.1
창작 및 공연 관련직	68	4.7
경영 관련 사무직	66	4.6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62	4.3
여행,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52	3.6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관련 기술자(엔지니어)	48	3.3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직	45	3.1

<표 계속>

희망직업	빈도(명)	비율(%)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43	3.0
의사	43	3.0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43	3.0
간호사	40	2.8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39	2.7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38	2.6
경영, 회계 관련 전문직	30	2.1
군인	29	2.0
작가 및 출판 관련직	23	1.6
법률 전문직	21	1.5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21	1.5
기자	21	1.5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20	1.4
기타	267	18.5

(3) 실업계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유형

실업계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학교교사가 121명(1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디자인 관련직과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이 각각 7.1%,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청소년이 1% 미만인 직업유형은 전체의 11.9%로, 여기에는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종교관련직, 운송관련 단순직, 금속제조 관련 조직원 등 46개 직업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실업고생의 희망직업 유형

희망직업	빈도(명)	비율(%)
학교교사	121	10.0
디자인 관련직	86	7.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86	7.1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66	5.5
간호사	61	5.0
경영 관련 사무직	52	4.3
주방장 및 조리사	51	4.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51	4.2
창작 및 공연 관련직	49	4.0
군인	40	3.3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34	2.8
여행,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33	2.7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관련 기술자(엔지니어)	31	2.6

<표 계속>

희망직업	빈도(명)	비율(%)
자동차정비원	28	2.3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련직	27	2.2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6	2.1
경영, 회계 관련 전문직	26	2.1
치료사	20	1.7
작가 및 출판 관련직	20	1.7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직	20	1.7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	19	1.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8	1.5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15	1.2
식품가공 관련직	14	1.2
학원강사	13	1.1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12	1.0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	1.0
사회복지 전문직	12	1.0
전기전자공학기술자	12	1.0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2	1.0
기타	144	11.9

2. 청소년의 직업결정 유형

미래 직업결정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낮게는 56.4%(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에서 높게는 75.2%(인문계 여자 고등학생)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 직업결정을 한 청소년은 중학생은 1,252(62.6%)명이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1,443명(72.2%)이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1,211명(60.6%)이다. 이들은 희망직업 유형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직업결정이 자신의 적성이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직업결정 유형을 자신이 정한 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전망 및 보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적성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8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보았다. 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과 전망 및 보수의 경우 ‘전혀 모른다’ 1점에서 ‘매우 잘 안다’ 5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보통이다’는 3점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 혹은 ‘모르고 있다’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고 ‘전혀 모른다’와 ‘잘 모른다’는 ‘모른다’로, ‘매우 잘 안다’와 ‘잘 안다’는 ‘안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직업결정유형을 정하는데 사용했다. 다음에는 8개 직업결정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5> 직업과 적성에 관한 정보에 근거한 직업결정 유형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전망 및 보수	적성	직업결정 유형
○	○	○	1유형(신중결정형)
○	○	×	2유형(과시형)
○	×	○	3유형(소신형)
○	×	×	4유형(조급형)
×	○	○	5유형(오리무중형)
×	○	×	6유형(실리추구형)
×	×	○	7유형(순진무구형)
×	×	×	8유형(비합리형)

청소년의 직업결정 유형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은 1유형(신중결정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유형(비합리형), 7유형(순진무구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6유형(실리추구형), 5유형(오리무중형), 4유형(조급형)의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1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남학생의 8유형보다 7유형이 많았고 여학생은 7유형보다 8유형이 더 많았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1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유형, 7유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1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유형, 8유형, 2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표 6> 청소년의 직업결정 유형 빈도와 백분율

학급별	성별	유형								전체
		1	2	3	4	5	6	7	8	
중학생	남	121 (56.5)	15 (7.0)	11 (5.1)	3 (1.4)	3 (1.4)	1 (0.5)	31 (14.5)	29 (13.6)	214 (100.0)
	여	119 (54.6)	14 (6.4)	18 (8.3)	5 (2.3)	4 (1.8)	1 (0.5)	21 (9.6)	36 (16.5)	218 (100.0)
전체		240 (55.6)	29 (6.7)	29 (6.7)	8 (1.9)	7 (1.6)	2 (0.5)	52 (12.0)	65 (15.0)	432 (100.0)
인문고	남	155 (70.1)	20 (9.0)	5 (2.3)	1 (0.5)	5 (2.3)	3 (1.4)	19 (8.6)	13 (5.9)	221 (100.0)
	여	125 (67.6)	19 (10.3)	9 (4.9)	0 (0.0)	4 (2.2)	0 (0.0)	17 (9.2)	11 (5.9)	185 (100.0)
전체		280 (69.0)	39 (9.6)	14 (3.4)	1 (0.2)	9 (2.2)	3 (0.7)	36 (8.9)	24 (5.9)	406 (100.0)
실업고	남	112 (51.1)	18 (8.2)	18 (8.2)	5 (2.3)	6 (2.7)	3 (1.4)	33 (15.1)	24 (11.0)	219 (100.0)
	여	98 (54.1)	22 (12.2)	7 (3.9)	4 (2.2)	1 (0.6)	2 (1.1)	26 (14.4)	21 (11.6)	181 (100.0)
전체		210 (52.5)	40 (10.0)	25 (6.3)	9 (2.3)	7 (1.8)	5 (1.3)	59 (14.8)	45 (11.3)	400 (100.0)

3. 청소년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중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성인지 여부, 진로관련 경험(교과이수,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활동과 대화(삶에 대한 대화,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진로관련 정보찾기), 아르바이트 경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중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삶에 대한 대화,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가 미래 직업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중학생 미래 직업결정 전체 변량의 17.4%를 설명했다.

한편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적성, 진로관련 대화, 삶에 대한 대화가, 여학생의 경우, 적성, 삶에 대한 대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미래 직업결정 설명력은 남학생의 경우가 20.4%, 여학생의 경우가 14.5%였다.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는 진로선택 관련 대화는 남학생만,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는 여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표 7> 중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변인	Beta	t	Sig.	R ²	adj. R ²
전체	적성	.380	18.378	.000	.175	.174
	삶에 대한 대화	.071	3.410	.001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067	3.169	.002		
	아르바이트	.059	2.904	.004		
남학생	적성	.396	13.682	.000	.206	.204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123	4.133	.000		
	삶에 대한 대화	.068	2.311	.021		
여학생	적성	.364	12.387	.000	.148	.145
	삶에 대한 대화	.072	2.450	.014		
	아르바이트	.059	2.015	.044		

2) 인문계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계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적성, 진로관련 정보찾기,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진로관련 강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결정 전체 변량의 14.2%를 설명했다.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은 적성, 진로관련 정보찾기, 진로관련 강연, 적성

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가 미래 직업결정 전체 변량의 15.7%를 설명하는 반면, 여학생은 적성,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 진로관련 정보 찾기가 1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진로관련 강연과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는 남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학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인문계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변인	Beta	t	Sig.	R ²	adj. R ²
전체	적성	.322	15.170	.000	.144	.142
	진로관련 정보찾기	.066	3.026	.003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075	3.584	.000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064	2.957	.003		
	진로관련 강연	.044	2.075	.038		
남학생	적성	.326	11.353	.000	.161	.157
	진로관련 정보찾기	.074	2.596	.010		
	진로관련 강연	.066	2.347	.019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070	2.520	.012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067	2.321	.020		
여학생	적성	.302	9.405	.000	.120	.117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091	2.822	.005		
	진로관련 정보찾기	.075	2.352	.019		

3) 실업계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업계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적성, 진로관련 정보찾기,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결정 전체 변량의 15.1%를 설명했다.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적성, 진로관련 정보찾기,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가 전체 변량의 15.2%를 설명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적성, 진로관련 정보찾기,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진로교과 이수가 전체 변량의 1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적성과 진로관련 정보찾기는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가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와 진로교과 이수가 영향을 각각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실업계 고등생의 미래 직업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변인	Beta	t	Sig.	R ²	adj. R ²
전체	직성	.322	15.192	.000	.153	.151
	진로관련 정보찾기	.126	5.826	.000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071	3.241	.001		
남학생	직성	.329	11.551	.000	.155	.152
	진로관련 정보찾기	.119	4.112	.000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070	2.382	.017		
여학생	직성	.329	10.544	.000	.154	.151
	진로관련 정보찾기	.125	3.853	.000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077	2.384	.017		
	진로교과	-.070	-2.269	.023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1) 청소년의 직업결정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2) 직업결정 준거에 따라 직업결정유형을 분석하고, (3)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성별과 학교급별 청소년의 미래 직업결정 비율을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미래 직업결정 비율이 높았다. 미래 직업결정 비율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은 Fawcett와 Maycock(2001)의 연구에서처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조아미(2001)나 Bergeron와 Rumano(1994)의 연구처럼 성차가 없다는 결과도 있어 아직 이 부분에 있어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 직업결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발달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여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남학생보다 빨리 시작하고 빨리 직업결정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미래 직업결정 비율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낮고 오히려 중학생과 비슷하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미래 직업결정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무언가 미래 직업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과거보다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직업결정 비율을 낮게 했다고 본다.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을 전제로 미래 직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교의 특성상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이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곧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 그만큼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그에 대한 고민을 고등학교 때 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 직업결정 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희망직업 유형을 분석해 보면, 기타에 나타난 직업유형을 포함해서 볼 때,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은 직업유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직업 유형이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직업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희망직업 유형 중에서 공통적으로 학교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특히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약 1/4 정도가 학교교사를 원했는데, 이것은 요즘과 같이 학교붕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교사를 희망한다는 것은 아마도 교직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넷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직업결정유형은 다른 선행연구와는 달리 미래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유형을 범주화한 것이다. 즉, 직업결정을 적성인지, 희망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인지, 보수 및 전망 인지의 3개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8개 유형이 있지만 실제로 범주화한 결과, 3개 유형은 5% 미만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개 유형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적성,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보수 및 전망을 모두 인지하고 미래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은 중학생의 경우 55.6%,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69%,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52.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나머지 청소년들은 3개 준거 중 적어도 하나는 간과한 채로 자신의 미래 직업을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3개 준거 중 아무 것도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은 중학생의 경우 15%, 실업계 고등학생은 11.3%나 된다. 또한 적성만을 인지한 채로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도 중학생의 경우 12%,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14.8%나 된다.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청소년의 미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적성인지의 경우 중학생,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결정을 할 때, 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유형의 진로지도의 경우 예상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 남학생, 여학생의 집단에서는 어떤 유형의 진로지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전체 인문계 고등학생과 남학생의 경우 진로관련 강연 경험만이 영향을 미칠 뿐이었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에게만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경험이 미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진로관련 지도가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진로관련검사와 진로상담 등은 경험비율은 높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직업체험은 워낙 경험비율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김관환, 1996). 이에 대한 설명 중 하나는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이론적 토대에 근거해서 개발했거나 현장에서 인정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했기 때문이고,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진로상담이나 다른 진로지도에 있어서 단지 시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정에서 인생, 진로선택,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나 진로관련 정보찾기 활동은 오히려 청소년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미래 직업결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여자 중학생에게만 그들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아르바이트 경험이 직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그들이 희망하는 미래직업과 관련성이 적어서 아르바이트로부터 직업결정에 관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학교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사 도우미로서 활동하는 경험을 갖는 것처럼(물론 직업체험과도 중복이 되겠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분야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옥희(2003). 집단상담 진로탐색과 인터넷 진로탐색이 중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신영(2001).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02).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2000). 효과적인 진로상담 방향 모색, 제7회 심포지엄, 청소년과 진로-21C 신지식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진로지도의 과제와 방향,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자료집.
- 김지혜(1998).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판환(1996). 진로결정상담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 진로상담학회지, 1.
- 김현수·장기명·이난(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8(1)
- 노만진(2003).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최인화·이재창(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25-146.
- 서울대학교(1993). 학생연구, 학생생활연구소.
- 손충기·이영희(2001).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직업 및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학생지도 연구, 21
- 송소원(2001).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학생생활연구, 14.
- 아주대학교(1994). 바람직한 대학진학 및 진로지도, 아주대학교 출판부.
- 윤선미(2001). 농촌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연(2003).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및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2003).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의사결정 성향이 진로미결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유계식(1996).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3, 111-145.
- 이현숙(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8). 진로의사결정과 개인적 변인들과의 관계 분석, 진로교육, 9, 223-276.
- 이화여자대학교(1994).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전종남(2002).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유형 및 직업정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0). 사이버상담에 나타난 청소년의 진로문제 유형과 그 시사점, 청소년정책연구.
- 조아미(2001). 청소년의 직업기대와 진로 결정유형,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치완(2000). 기술교육의 진로·직업정보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geron, L.M. & Romano, J.L.(1994).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ducational indecision, vocational indecision, and gender,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 Fawcett & Maycock(2001).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Gender and Career Decision-making confidence levels of high school seniors in a school-to-work program using the career decision scale, ED 455467
- Gati, I. & Saka, N.(2001). High school students' career-related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 331-340.
- Gati, I., Krausz, M., & Osipow, S.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Harren, V.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err, E.L. & Cramer, S.H.(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5th ed.), New York: HarperCollins.
- keep.nhrd.net/jsp/html/research/survey_con.html
- Luzzo, D.A.(1995).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 employment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Employment Administrators, San Francisco, CA.
- Peng, H. & Herr, E.L.(1999). The impact of career education courses on career beliefs and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business colleg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5(4), 275-290.